

##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 1. 기본정보

이름	정승*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킬로나 Kelowna
파견대학	Okanagan College	기간	2017. 1. 22(일) ~ 2. 12(일)

###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Kelowna의 중심 부근에 위치해있고 학교가 많이 크진 않다. 도서관이 있는 E관을 제외하면 대부분 1층짜리 건물로 이루어져있다. 따뜻하고 활발한 분위기이며 학생들끼리 진행하는 행사도 많은 것 같고 점심시간을 포함한 쉬는 시간에 S관 중앙 탁구대는 항상 탁구를 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크게 인종차별적 행위를 하는 학생들도 없었고 선생님들도 친절했다.
수업	홈스테이 가족들 혹은 Okanagan College내의 학생들과 진행하는 설문을 직접 만들어 원어민과 대화하는 경험을 늘릴 수 있었다. 수업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과 함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했으며 친절하고 유머러스한 강사님과 함께여서 지루하지 않았다. 캐나다에서만 사용하는 단어나 캐나다의 간식 등도 체험해볼 수 있었다. 대부분의 수업은 함께 수업하는 학생들과 특정한 주제로 짧은 발표형식의 말하기를 하는 식이었다. 처음 한 두 번은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리도 되어 있지 않아서 원하는 대로 말하지도 못하고 당황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작은 발표를 하나하나 해가면서 조금씩 발전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과제는 홈스테이 가족들에게 질문을 하는 정도로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를 토대로 가족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가족들과 할 말이 없다고 느낄 때에도 과제가 있으니 도와줄 수 있겠냐는 말과 함께 먼저 다가가면 많이 좋아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하다.
Activity	우리는 학교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Activity에 필요한 비용은 따로 없었다. 다만, 첫째 주 Activity 중 Aqua Centre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있었는데 우리 중 다수가 이를 몰라 수영복을 챙기지 못해 불링으로

	<p>대체된 적이 있었다. 혹시나 수영이 하고 싶다면 수영복을 챙겨 주말에 개인적으로 가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다녀왔던 친구들에 의하면 생각보다 조금 작다고는 하지만, 가장 기대하는 활동 중 하나가 스키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스키복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냥 산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추위를 많이 대비해야 한다. 워머나 핫팩을 챙기는 것도 좋다.</p>
--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겨울이기도 했고 워낙 캐나다는 춥기로 유명한 나라이니 당연히 추웠다. 눈이 오는 날도 많았다. 인도가 치워져있지 않으면 발목까지는 쌓여있는 것이 기본이었다. Kelowna는 캐나다 중에서도 가장 따뜻한 지역이라고 하고 여름엔</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숙소	<p>학교기숙사( ) 홈스테이 ( ) 외부 숙소( ) 기타( )</p> <p>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식사	<p>학교식당( ) 홈스테이 ( ) 외부식당 ( ) 기타( )</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및 여행자보험	약 1,500,0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현지 생활 비용	약 500,000원	쇼핑, 식비 등
합계	2,000,000원	







#### 5. 출국 전 준비사항

해외 유심 구매 후 갔는데, 혹시나 해서 LTE 6Gb사용 가능한 것으로 구입해갔으나 실제 사용한 양은 적었다. 그러나 본인이 평소에 데이터를 많이 사용한다면 6Gb짜리를 구입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2Gb와 만 원 정도의 차이만 있었다. Kelowna는 생각보다 Vancouver와 거리가 멀고 버스를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시간이 잘 안맞기도 해서 비행기를 이용해야 했는데 비행기 가격이 주중엔 20만 원대 중반, 주말엔 30만 원대 초반까지로 꽤 비싸기 때문에 여행갈 계획이라면 잘 찾아보고 오는 게 좋을 것 같다. 홈스테이 가족 선물로는 본인은 라면과 젓가락을 준비했었다. 아무래도 동양권 학생들이 자주 갔었으니 젓가락 선물은 이미 받아본 적 있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았고 라면은 굉장히 좋아하셨다.

#### 6. 본인 소감 및 평가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보는 것도 그렇고.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다. Kelowna를 좋게 기억하는 데는 홈스테이 가족의 영향도 상당히 컸다. 같이 간 친구들 중 홈스테이가족과 마찰이 있었던 친구들이 있었기에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다. 가능하면 홈스테이가족에게 말을 많이 걸어보고 티비 보고 있으면 옆에서 내용도 물어가면서 말을 많이 해보는 게 좋다. 3주간의 경험으로 이전보다 더 회화를 알아듣기가 수월해진 것 같다. 이 느낌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일단은 더 많은 영어를 듣고 따라할 수 있도록 미국 드라마나 개그프로, 만화 등으로 귀를 계속 열어둘 생각이다. 또 현지 친구를 사귀 만큼 연락을 계속 이어가면서 작문실력도 늘려볼 생각이다.

##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홈스테이 하우스</p>	<p>학교 전경</p>
	
<p>눈</p>	<p>Okanagan College 학생</p>
	
<p>스키장 슬로프</p>	<p>수료장</p>